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1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주님, 올해 교회 화단에 옮겨 심은 감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무럭 무럭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잎을 내고 꽃을 피우더니 꽃이 진 자리에 작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희망 꽃이 떨어진 자리에도 새로운 소망의 열매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이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눈앞의 깊은 어두움을 넘어 새벽의 여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직분과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136. 성령강림(2)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최희영 선생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13(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 다함께

성경봉독 I. 룻 1:14-21 박제림 학생

..... II. 사 11:1-9 박시내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보고픈 사람, 룻 김재홍 목사

..... II. 역사의 꿈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546(통399).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에 서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이 가져다주는 헛된 꿈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다 함 께 : 주님,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며 이사가야 꾸었던 꿈이 거짓이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만이 우리의 희망이 됨을 깨닫습니다. 느리고 더디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 꿈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은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월례회	말씀 : 김재흥 목사
찬양 : 장성호 형제	기도 : 문영혜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양재성 목사	최다미 학생 김인걸 장로	이형석 학생 최현옥 집사

6월	영접위원	방문성 하현철 윤성종 박효선 허정윤 김윤정
	헌금위원	한상익 문영혜(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지성의 미래

그럼 지성은 완전히 죽었나, 죽을 수 있는 것인가? 절대로 아니다. 위에서 말한 절대 진보의 신념이 필요한 것은 여기서다. 지성이야말로 불사조다.

지성의 패배는 결국 덕이 무너진 것을 말한다. 지(知)가 진 것은 능(能)에 대해서인데 지·능이 충돌되는 것은 인격 곧 덕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지와 능이 일치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인데, 그것이 서로 싸우면 인격의 파멸이 온다. 인격이 통일을 잃었으므로 지·능의 충돌이 온다. 그러므로 이 비극을 회복하는 것은 덕성의 회복에 달렸다. 학생과 군인이 충돌하는 나라, 그것은 미친 나라다. 우리 국민 성격이 깨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이것은 민족의 일대 위기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나 민족은 망하고 말 것이다. 군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학생은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때에 지성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자기를 잊은 반항은 망하는 반항이다. 또 학생을 짓밟는 군인은 제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에 정말 힘이 살았던가 죽었던가, 자기를 잊은 힘은 짐승의 힘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덕을 회복하기 위하여 냉철한 이성을 활동시켜야 한다. 선각자의 계몽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말마다 인물 빈곤을 말한다. 지도자 없음을 한탄한다.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디서 올까? 이러한 혼란기에 우선 필요한 것은 물론 유능한 인물이다. 의욕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물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知)·정(情)·의(意)의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요, 더구나 현대는 스스로 자기를 아는, 알려는 주체성을 가진 씨울의 시대다. 그러므로 힘의 숭배만으로는 아니 될 것이 뻔하다. 옛날같이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능(能)은 개인의 능이 아니라 대중의 능, 전체의 능이다. 천재가 독재를 하는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고

말았다. 역사를 잘못 읽어서는 아니 된다.

중인(衆人)의 능, 전체의 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능보다 더 필요한 자격은 지성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덕이다. 덕은 무엇이나? 자기 속에서 전체를 체험하는 일이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나타낸 것이 헌법이다. 옛날 임금의 덕이 발달하면 헌법이 되었다. 아무리 어질어도 자기의 의사를 고집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의지와 지혜로 표시된 헌법에 겸손히 복종할 만한 덕이 있지 않고는,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 자신이 있어야 하지만, 잘못된 자신이 사람을 망친다. 이 의미에서 종교와 교육과 언론과 집회와 예술의 절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은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워진 나라에서는 결국 악순환인데, 가지가지 잘못이 서로 얽혀서 무엇부터 풀어야 할지를 알 수 없는데, 지혜와 용단은 그 어느 고리에서 자르느냐 하는 데 있다. 한 고리가 풀리면 전체가 풀릴 줄이나, 그 어느 고리에서 자르느냐가 문제다. 모험이라면 다 모험이다. 그러나 마땅히 모험해야 하는 올바른 점은 지(知)에 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번 모험을 할 전략적인 지점이 셋이 있다 할 수 있다. 부(富)가 그 하나요, 권(權)이 또 하나요, 그 다음은 지(知)다. 그러나 이 셋 중에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은 지라는 말이다.

모험이라면 다 모험이다. 잘못하다가는 나라를 송두리째 망친다. 부나 권으로서 하는 모험은 꼭 될 듯한데 반드시 패망에 이르고야 만다. 역사가 행진해온 큰길 좌우 옆 도랑에 수두룩한 백골이 다 부권(富權)을 가지고 자신만만하다면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들이다. 안 될 듯한면서, 열어놓으면 홍수처럼 전국을 혼란에 담가버릴 듯하면서 사실 나라를 건지는 것은 지(知)의 문이다.

호모 사피엔스 아닌가. 앞으로의 역사는 점점 더 지성의 역사가 될 것이다. 칼을 꺾고 생각을 깊이 하자.

■ 마/음/으/조/워/는/글

6월의 장미

하늘은 고요하고 / 땅은 향기롭고 /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돌아난다고

6월의 넝쿨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 낸 /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 이해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장영숙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한상의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구명자 김신옥 김중수 이순정 김지호
 김희진 박홍재 방민 배삼순 권호진 손성현 안정숙 오자영 정미경
 조문규 진정숙 방준 이건식 신영신 양재성 임미심 허신열 김도연
 강미선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수진 김승현 박범희 박미영 박석희 조항미 서정순
 왕수명 이재문 이동천 장재영 김재영 김문주 한성건 박상규 최동운
 박찬정 윤성종 김윤정 백성래

감사헌금:

권재영 우순덕 김용진 박효선 정원진 이인웅 원인모 최성애 박애순
 박시내 무명6

생일감사헌금:

김지호 김종철 허성호 김일량 조순덕 고영애

녹색꿈 헌금:

한훈식 이건식 신영신 이인섭 박상규 무명1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연합속회	오송경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안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춘녀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강미라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평신도 주일** :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 **월례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 월례모임입니다.
3. **환경선교포럼** : 감리교 환경선교위원회와 선교국이 주최하는 2009 환경선교 포럼이 12일(금) 오후 2시 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선교의 나아갈 길'이고, 강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이정배 교수입니다.
4. **청파산악회** : 13일(토)에 도봉산으로 산행을 갑니다. 가실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지하철 1호선 회룡역, 도봉산 방면 역광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5. **담임목사** : 재독한인교회연합회의 초청을 받아 독일에 다녀옵니다. 8일에 출국하여 30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신앙실천** : 교회의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밥과 국을 먹을 만큼만 받아 가시고 남기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다음 주 : 고린도 속)

* 설거지 봉사 : 곽상준 최경미 (다음 주 : 이정현 박권동)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